

탕 탕 탕 탕!...한국 사격, 역대 최고 성적 보인다

銀 金 銀 金



2024 파리 올림픽

사격이 2024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초반 메달레이스를 이끌며 '호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격 대표팀은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시작으로 연일 시상대에 오르면서 '100번째 금메달'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올림픽 개막과 함께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이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메달 소식을 전해왔다.

24세 '동갑내기' 박하준-금지현은 성리하오-황위팅(중국)과의 금메달 결정전에서 막판 추격에 실패하며 12-16으로 졌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8일에는 금메달을 놓고 집안싸움이 벌어졌다. 공기권총 10m에 출전한 오예진(IBK기업은행)과 김예지(임실군청)는 '최후의 2인'으로 사대에 남아 금메달을 놓고 승부를 펼쳤다.

한국 사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이 동시에 나온 것은 2012 런던 올림픽 50m 권총 진종오(금)-최영래(은) 이후 12년 만이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1개의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한국 사격은 오예진의 활약으로 금메달 계보를 잇게 됐다.

29일에는 '막내' 반효진(16·대구체고)이 큰일을 냈다.

사격 공기소총 10m 결선에 출전한 반효진은 251.8점을 쏘면서 이 종목 올림픽 결선 타이거록까지 수렴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효진의 상대는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흔들림 없는 사격으로 한국을 울렸던 황위팅(17)이었다. 반효진은 눈길 끈 '10대 맞대결'에서 막판 실수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지만 금메달을 사수했다.

공기소총 결선은 8명의 선수가 먼저 10발씩 쏜 뒤 이후 두 발씩 사격을 하면서, 합계 점수가 가장

여고생 반효진 슛오프 끝 우승

한국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별써 금메달 2·은메달 2 획득

'금3·은2' 런던 넘어설 지 관심

낮은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발의 사격에서 104.8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오른 반효진은 이후 13발째 사격에서 10.9점 만점을 쏘면서 1위 황위팅을 0.5점 차로 추격했다.

16번째 사격에서 다시 한번 10.9를 기록하면서 0.1점 차 1위로 올라선 반효진은 19번째 사격에서 동점을 허용했지만, 침착했다.

20번째 발로 0.1점 차로 다시 앞선 반효진은 22번째 승부에서 황위팅이 9.6점을 쏘면서 흔들린 사이 1.3점 차까지 달아났다.

그리고 금메달을 결정하는 마지막 두 발이 남았다.

넉넉한 점수 차가 있었던 만큼 손쉽게 금메달을 확정하는 것 같았지만 반효진이 9.9점에 이어 9.6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결국 금메달을 확정하는 마지막 한 발이 더 주어졌다.

스오프 승부에서 황위팅이 10.3점을 기록했고, 이어 방아쇠를 당긴 반효진이 10.4점을 쏘면서 금메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하계 올림픽 역사가 새로 만들어졌다.

만 16세 10개월 18일에 금메달리스트가 된 반효진은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딴 강초현(당시 만 17세 11개월 4일)의 기록을 깨고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등극했다.

또 반효진은 이번 대회 한국의 4번째 금메달과 함께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으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다.

'강심장 막내'의 금메달을 더한 한국 사격은 최근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 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반효진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진을 털고 최고의 올림픽을 노리고 있다.

한국 사격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하나씩 기록했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하나에 그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4 파리 올림픽 한국선수 경기 일정 (30~31일)

종목	경기명	한국시간
배드민턴	여자 복식 조별예선 공희용-김소영	30일 오후 9:00
	남자 단식 조별예선 전혁진	오후 9:50
	여자 복식 조별예선 백하나-이소희	31일 오전 4:10
사격	여자 트랩 예선 1일차 강지은, 이보나	30일 오후 4:00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 준결승-결승* 이원호-조영재-김예지-오예진	오후 4:30
유도	남자 81kg 이하급 32강-결승 이준환	30일 오후 5:00~오후 11:00
	여자 63kg 이하급 32강-결승 김지수	오후 5:00~오후 11:00
승마	마장마술 개인 그랑프리 1일차 황영식	30일 오후 6:00
	여자 핸드볼 예선 A조 노르웨이 vs 한국	30일 오후 6:00
양궁	남자 개인 64강-32강 김우진	30일 오후 9:36
	탁구 혼합 복식 결승* 임종훈-신유민	30일 오후 9:30
수영 경영	남자 200m 접영 예선/준결승* 김민섭	30일 오후 6:00 / 31일 오전 3:42
	남자 100m 자유형 예선/준결승* 황선우	30일 오후 6:15 / 31일 오전 3:30
펜싱	남자 200m 평영 예선/준결승* 조성재	30일 오후 7:51 / 31일 오전 4:47
	남자 4x200m 자유형 계영 예선/결승* 김우민-김영현-양재훈-이우연-이호준-황선우	30일 오후 8:08 / 31일 오전 5:01
기체체조	여자 아메리칸체 8강/결승* 강영미-송세라-이혜인	30일 오후 8:30 / 31일 오전 3:30
	여자 단체 결승 신술아-임도현-여서정-이다영-이윤서	31일 오전 1:15
복싱	여자 54kg급 16강 임예지	31일 오전 4:36

*이전 경기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연합뉴스

여서정,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성큼'

도마 4위로 결선행...3일 오후 11시 20분 8명 경쟁

여서정(22·제천시청·사진)이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획득 찬스를 잡았다.

여서정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기체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에 출전해 주 종목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183점을 획득했다.

여서정은 예선 4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2020 도쿄 올림픽 도마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여자 체조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여서정은 2회 연속 메달의 꿈을 부풀렸다.

북한의 안창욱(21)도 여서정과 동점을 이루고 예선 5위로 결선에 합류해 메달을 놓고 남북 대결을 펼친다.

국제체조연맹은 평균 점수가 갈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를 상위에서 올려준다.

여서정은 1차 시기에서 14.400점을 내 2차 시기에서 14.300점을 받은 안창욱을 5위로 밀어냈다.

여서정이 파리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이 걸린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사이 안창욱은 같은 기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도마에서 우승해 세라이벌로 떠올랐다.



여자 기체체조는 단체전 점수를 바탕으로 도마-평균대-이단평행봉-마루운동 4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종합 결선 출전자 24명과 4개 종목별 결선 진출자 8명씩을 가린다.

여서정은 1차 시기에서 난도 5.4점짜리 기술을

펼쳐 수행 점수 9.000점을 보태고 14.400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차 시기에서는 난도 5.0점짜리에 수행 점수 8.966점을 보태 13.966점을 얻었다.

난도가 0.4점 낮아 전체 점수가 내려갔을 뿐 여서정의 1, 2차 시기 착지는 깔끔했다.

돌아온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미국)가 15.300점의 압도적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여서정의 메달 도전은 한국시간 8월 3일 오후 11시 20분 베르시 아레나에서 벌어진다.

여서정을 필두로 이윤서(경북도청), 신술이(강원도체육회), 엄도현(제주삼다수), 이다영(한국체대)으로 구성된 여자 체조대표팀은 36년 만에 출전한 올림픽 단체전 예선에서 4개 종목 합계 152.496점을 획득해 참가한 12개 나라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 여자 체조는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극적인 막자를 타고 1988년 서울 대회 이래 올림픽 단체전에 복귀했다.

한국 체조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여자 대표 선수들은 비록 한 계단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치지 않고 5명의 선수가 즐기기면서 올림픽 무대를 경험한 것에 의미를 뒀다. /연합뉴스

'V12' 함께 가자...알드레드 위력투 '다시 한번'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캄 알드레드가 팀과 자신의 운명을 걸고 혼신의 피칭을 준비한다.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했던 KIA에는 시작과 끝은 좋았던 한 주였다.

KIA는 23일 NC와의 홈경기에서 '기록의 날'을 보냈다. '야구 천재' 김도영이 4타석 만에 내주릴 사이클링 히트 기록을 완성하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9회까지 나홀로 책임지면서 9이닝 1실점의 완투승을 기록했다.

사이클링 히트와 완투승이 동시에 나온 KBO리

두산-한화전서 두 차례 등판 예정 팀 승리·거취 '두 토끼' 잡기 나서 '홈런 1위' 타선 믿고 선발 버텨야

그 역사의 세 번째 날, KIA는 올 시즌 최대 연승 기록을 '7'로 늘렸다.

24일에는 하늘도 KIA 편이었다.

KIA는 이날 선발 신민혁이 팔꿈치 통증으로 일찍 물러난 NC를 상대로 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7-0으로 앞선 상황에서 5회말이 마무리됐고, 굵은 비가 쏟아지면서 KIA 선발 캄 알드레드는 행운의 완

봉승을 거뒀다.

5회까지만 경기를 하고 8연승을 만들면서 KIA는 1위 독주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25일 김도영이 1회부터 제구난조로 흔들리는 등 KIA는 이날 9개의 볼넷을 남발하면서 9연승 달성에 실패했다.

이후 최하위 키움과의 주말 원정에서는 볼펜이 무너지면서 3연패에 빠졌다. 김도영은 27일 3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면서 최연소 100득점 선점과 최소 경기(97경기) 100득점 기록도 작성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그대로 마무리는 좋았다. 28일 KIA는 실책으로 3실점은 했지만 3개의 홈런으로 역전승을 연출했

다. 8회 2사에서는 최원준이 추격의 투런포를, 9회 2사에서는 김선빈과 변우혁의 백투백 홈런을 만들면서 4-3 역전승을 거뒀다.

처음과 시작은 좋았지만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볼펜이 움직이면서 연패가 기록됐다.

23-24일 볼펜진이 쉬어갔고, 25일에는 최지민이 엔트리에 재합류하면서 뒷심 싸움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지민과 전상현이 키움 원정에서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KIA는 연패에 빠졌다.

두산 베어스와 홈경기에 이어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를 앞둔 KIA는 역시 화력에 기대를 하고 있다. 홈런 1위 팀 KIA(120개)는 지난주에도 가장 많은 9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냈다. 김도영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하는 투런 포함 4개의 홈런을 터트렸고, '작은 거인' 김선빈도 2경기에서 홈런타자로 그라운드를 돌았다. 나성범, 최원준, 변우혁까지 홈런을 추가하면서 KIA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버티면 터지는 타선의 힘, 선발이 일단 버티줘야 한다.

캠 알드레드가 시선이 쏠리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알드레드는 30일 선발로 나서 두산 에이스 콰빈을 상대한다. 로테이션상으로는 8월 4일 한화 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

팀 승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도 알드레드의 매서움이 필요하다.

'V12'를 목표로 하는 KIA는 선발진 3명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을잔치'를 위해서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확실한 선발이 필요하다. 월 크로우의 부상 대체 선수로 영입한 알드레드의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다.

알드레드가 선발 고민 중인 KIA와 뜨거운 가을을 보내기 위해서는 앞선 NC전에서 보여준 위력투가 필요하다. 알드레드의 어떤 무대 표정에 따라 KIA의 한 주 성적도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